

2026 년 6 월의 기도 편지 (2026 년 4 월~6 월)

과테말라 Jalapa 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 드립니다. 2 사분기도 주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섬길 수 있었습니다. 남은 한 해도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해봅니다. 전심으로 동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저희 부부의 마음을 담아 기도 편지를 보내 드리오니 기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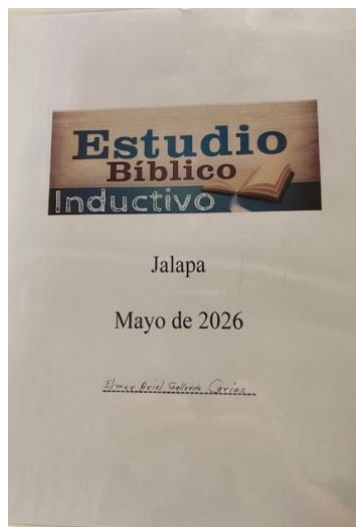
1.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은혜의 섬김

Adony 목사가 섬기는 Familia de Dios 교회에서 요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좁고 열악한 장소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곳에서 섬김을 주께서 허락하시는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윗과 그를 찾아온 사람들이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을 인내하며 함께 지내며 미래를 준비한 아둘람 공동체와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높은 하늘을 날 수 있는 독수리가 아직 자신들이 독수리인지 모르고 둥지에서 성장 중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모임을 가지며 모두가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주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2 사분기에 예정 되었던 계획에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곳 목회자/리더들과 성경공부를 시작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소수의 인원이지만 그동안 관계를 맺어온 목회자 두 분과 교회에서 설교로 섬기는 장로님 두 분 이렇게 4 분과 성경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2 달여를 진행하여 귀납적 성경연구 방법을 익히는 것에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런 시간을 통하여 저도 준비를 시켜 주시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의 발 길이 닫고 관계가 맺어지는 분들과 이런 섬김의 길이 더 열려 지기를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납적 성경 연구 소개



개인 바인더



디도서 공부

2026 년 6 월의 기도 편지 (2026 년 4 월~6 월)

2. 미래를 위하여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섬기며

저희가 전에 경험했던 셀라지역의 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생각과 환경이 이곳 할라파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개인적 차이는 있겠지만 과테말라 서부지역에 비하여 이곳 동부 지역의 교육에 대한 열의가 다소 떨어지고 부모의 관심도 비교적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진행해 보는 방과 후 학교는 진행하며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장소의 협소 함과 이웃 주민들의 관심 부족의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해서 사랑으로 섬겨 나가면 언젠가 열매를 거둘 수 있으라 기대합니다. 교회내 아이들과 이웃의 아이들이 이곳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복음도 조금씩 더 접하며, 예수님의 제자들로 잘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숙제도 돕고



즐거운 게임도 하며



종이접기 배우기

3. 주께서 부탁하신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작년 8 월에 2 개월된 요르단을 소개 받고 도운지 벌써 1 년이 다가옵니다. 아이가 첫 돌을 맞이하여 첫 생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찾아 갈 때마다 놀이 장남감을 하나씩 준비해 가는데 이 작은 것에 형제들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에 저희도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비록 어려운 환경이지만 아이들이 잘 자라는 모습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요르단 첫 생일 축하



Dot 게임하며 즐거운 요르단 형제들

2026 년 6 월의 기도 편지 (2026 년 4 월~6 월)

올해 4 월 말에 6 개월된 Erica 를 보건소 직원 Anai 를 통하여 소개를 받았습니다. 할라과 시내에 거주하며 언니 2 명과 엄마 그리고 Erica 친 아빠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체중이 모자라서 락토프리 분유 공급이 필요했습니다. 보통 어려운 가정과 비슷하게 Erica 의 아빠는 우리가 본 후 한달 후에 어디론가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엄마는 세 아이를 데리고 남의 집 청소와 토르티아 가게에서 일하며 양육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방도 하나 짜리로 옮겼습니다. 아픈 마음을 안고 이 가정을 조금씩 돕고 있습니다.



첫 만남



조금 성장한 에리카

Llano de puerta 교회에 한 여 성도가 아픈 몸을 이끌고 오시기에 마음에 많이 남았었습니다. 자매의 이름은 Leticia 입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몸의 반쪽이 마비되어 자유롭지 못하고 말도 많이 더듬는 것이 못내 마음이 쓰여서 아내와 혈압계와 비타민을 챙겨서 찾았습니다. 대화가 자유롭지 못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어려운 시간을 오랜 동안 지냈고, 지금도 이웃에 노모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이라도 필요한 것들 챙겨서 찾아가 친구가 되어 주려 합니다.



레티시아 집을 방문하며



다시 찾아 올 것을 약속하며

2026년 6월의 기도 편지 (2026년 4월~6월)

4. 동역하는 교회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저희 집에서 1시간 거리 Rodeo 라는 지역에 에덴 동산 교회가 있습니다. 자립을 해서 잘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저희 부부가 섬겨 줄 수 있는 영역은 목회자 부부가 잘 섬기도록 격려하며, 사모 신학교 지원과 아들 Angel 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돕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동기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성도들도 노력을 하여 교사를 1명에서 3명을 늘리고 분반을 시도하여 많이 성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장을 보는 즐거움이 감사함을 느끼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미션의 밤을 위하여



유년부 아이 주일학교



소년부 주일학교

이곳 할라파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섬김의 기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를 섬기는 선생님이 근무하는 산골 학교에도 방문을 했습니다. 700 명의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기회가 있는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골마을 los planes 지역에 에덴동산 교회도 기회가 되는대로 방문하며 교회가 다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위하여 목회자인 Jaquelin 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곳 할라파에 장로교 Dios es amor 교회를 알게 되어 예배에 참석하며 교인들과 교제 중입니다. 가까운 지역에 교회 개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섬길 수 있는 영역을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보려 합니다.



포르레이지역 학교 방문



에덴 동산 교회



Dios es Amor 교회

2026년 6월의 기도 편지 (2026년 4월~6월)

5. 아래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1) 현지 사역자들 말씀 공부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더 열리도록
- 2) 동역 하는 교회들이 한 걸음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되도록
- 3) 어려운 가정들을 돕는 섬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더 넘치도록
- 4) 크리스천 리더들을 세우기 위한 어린이/청소년 장학 사역이 지속되도록
- 5)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저희 부부의 건강을 위하여
- 6) 밴쿠버 두 자녀가 주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들을 만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교회와 동역자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모든 일상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한광득, 이순옥 선교사 드림

[Tel:502-5033-8582](tel:502-5033-8582), 카톡아이디: lees1287, 후원문의: lees1287@gmail.com